

보도설명자료 (‘16.6.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年 60만개 팔릴 동안 성분조사 안해... ‘살균제 공범’ 정부” (‘16.6.28.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- 부처 간 엇박자를 낸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었다. 환경부가 2012년 9월 PHMG·CMIT·MIT를 유독물로 지정·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(KC)을 부여했다. 이 제품은 최근까지 판매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2016년 5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신발용 탈취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함.
 - 2012년 10월 해당 기업이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생산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 KC신고를 했으며, 신고 당시에는 PHMG가 동 제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음. 이에 따라 KC를 받게 됨.
 - * 2012년 7월부터 KC신고 시 업체는 시험검사기관에 ‘성분 및 배합비 자료’와 ‘유해물질의 안전성 자료’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음.
 - 이후 동 기업이 제품판매단계에서는 PHMG를 함유하여 판매하다가 환경부가 2015년에 해당제품을 적발했음.
 - * 탈취제를 포함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관리부처가 이관되었음.
 -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조치 등을 취한 바 있음



[참고 :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(2016.5.17.)]

“○ 바이오피튼(주)에서 생산한 ‘신발무균정’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되었다.

- 동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·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,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(PHMG 사용금지)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.”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희 과장 (043-870-5450)
이경희 연구관/김미애 연구사 (043-870-5451~2)